

## 中南아메리카의 인디언服飾에 關한 研究

宣貞姬\* · 俞泰順

大邱曉聖가톨릭大學校大學院 衣類學科 博士過程\*, 大邱曉聖가톨릭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 A Study on the Indian Costume of the Central-South America

Jung-Hee Sun\* and Tai-Soon Yoo

Dr.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Hyousu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eagu-Hyous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variety of the Indian costume of the Central-South America and to examine the relation and symbolization of each Indian culture and costume. A study's method is to be examined through literatures related to the culture and history of Central-South America Indian, photos and references related to costum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Indian male of Central-South America reveals that costume typ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cultural areas. Second, an analysis of Indian female of Central-South America reveals that costume typ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cultural areas. Third, a study on colors and patterns of Indian costume and personal ornament in Meso-America culture area reveals that they were influenced on the Maya and Aztec Civilizations. Fourth, a study on colors and patterns of Indian costume and personal ornament in Andes cultural area reveals that they were influenced on the Inca Civilization. Fifth, a type of ponchos is commonly revealed in Meso-America and Andes cultural areas because of particular climate. Sixth, a study on Tropical costume types reveals that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Meso-America and Andes culture areas due to its climate and terrain conditions.

#### I. 서론

유라시아대륙에서 베링해협을 건너온 아메리칸인디언은 남북 양대륙전역으로 퍼져 환경조건에 맞추어 독자적인 인디언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높은 문화를 자랑하는 마야와 아즈텍문명을 낳은 중앙아메리카의 메소아메리카문화나 잉카문명을 발생케한 남아메리카의 안데스문화를 육성해왔으며, 또한 아마존강, 오리노코강 등의 하천유역이나 대서양 등에서 열대우림문화도 전개하였다<sup>1)</sup>. 이러한 아메리카문화권들은 기후, 풍토, 인종과 같은 자연환경과 종교, 언어, 예술같은 문화환경속에서 다양한 인디언의 복식을 탄생시켰다.

현재 아메리칸인디언중에서 북아메리카에 거주한 인디언

의 복식에 관한 연구<sup>2)</sup>는 이루어져 왔지만, 중앙이나 남아메리카의 여러 인디언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남아메리카 문화권에서 발생한 인디언 복식의 다양성과 장식성을 살펴보고 여러 문화권에 따른 인디언의 문화와 복식의 관련성과 상징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메리칸인디언의 다양한 복식스타일과 장식구, 문양, 색상, 자수, 직조, 염색 등이 현대 복식디자인에 풍부한 영감을 주어 독창적 디자인개발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중남아메리카인디언의 문화와 역사에 따른 문헌과 복식에 관련된 사진자료, 참고서적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II. 중남아메리칸인디언의 문화적 배경

아메리칸인디언의 조상은 5만~3만년전 빙하시대에 유라시아대륙에서 베링해협을 건너와 북아메리카에서는 폴섬(Folsom), 클로비스(Clovis) 등 아름다운 석기를 수반하는 구석기문화를 탄생하였고, 후빙기의 환경변화에 따라 대분지에서 멕시코북부의 건조지대에 걸친 지역에서 사막문화로 불리는 채집경제를 낳았다. 농경에 의해 많은 잉여인구를 부양하게 되자, 메소아메리카와 중앙안데스에서는 큰 도시를 가진 대문명이 생기고 멕시코에 아즈텍, 안데스에 잉카라는 통일국가 생겨나게 되었다<sup>3)</sup>. 이렇게 남하한 인디언원주민들은 남북전역으로 퍼져 환경조건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지방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메리칸인디언의 문화적 특징을 중앙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스펜서의 분류(1965), 남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스투어드의 분류(1949)를 기본으로 메소아메리카문화권, 안데스문화권, 열대우림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메소아메리카문화권은 북,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문화를 자랑하고 복잡한 문명을 낳은 지역이다. 메소아메리카의 문화에는 올메카(Olmeca), 테오티와칸(Teotihuacan), 마야(Maya), 톨테카(Tolteca), 아즈텍(Aztec) 등을 들 수 있는 데, 모두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옥수수의 농경을 기초로 하였다. 대규모의 도시가 영위되고 피라미드 등의 큰 석조건조물이 세워졌다. 아름다운 금은세공이나 채색토기가 만들어지고, 독자적인 역년법(曆年法)이나 문자가 사용되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호전적인 기풍이 강해져 아즈텍에서는 태양의 힘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신공양이 행해졌다.

안데스문화권은 메소아메리카에 필적하는 남아메리카의 문명권이며 페루에서 볼리비아에 걸쳐있는 중앙안데스지역이 중심이다. 차빈(Chavin), 티와코이데(Tiuanacoide), 잉카(Inca)로, 3회에 걸쳐 하나의 문화가 넓은 지역을 뒤덮었다. 경제의 기초가 된 것은 관개를 수반한 옥수수농경으로, 안데스산맥의 고도차를 이용한 농경민, 목축민, 어민사이의 교역이 중요하였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잉카의 공용어였던 케차어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이마라어이었다.

열대우림문화권은 아마존강 등의 하천유역이나 대서양안 등에서 옥수수를 주작물로 하는 화전경작을 경제의 기초로 하였다. 아마존강 분류의 범람원이나 해안부 등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집단의 규모도 컸지만, 촌락을 넘는 큰 사회집단이 존재하는 일은 드물며, 전쟁 등의 경우에 동맹을 맺은 형식이 취해졌다. 계층분화도 인정되지 않으며, 각 마을의 수장과 종교를 관장하는 사면만이 다른 자들과 구별되는 존재였다.

## III. 중남아메리카의 인디언복식

중남아메리카를 메소아메리카문화권과 안데스문화권, 열대우림문화권으로 분류하여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등의 형태를 비교한 인디언복식의 특징을 <표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 1. 메소아메리카문화권의 복식

#### 1) 타라우마라(Tarahumara)인디언

타라우마라인디언은 멕시코교외의 공식적인 행사때 복식을 차려 입는다. 식민지이전때 덮은 긴 직사각형의 망토를 착용한다. 오토미(Otomi)와 같은 다른 인디언들은 망토를 스페인 식민이전을 가리키는 틸마틸(tilmatti)이라 부른다. 타라우마라인들은 북아메리카의 나바호인디언이 착용한 망토와 비슷한 형태를 입는다. 콜롬버스이전의 장식구인 띠를 머리에 두른다<sup>5)</sup>.

#### 2) 위츨(Huichol)인디언

위츨인디언은 멕시코의 잘리스코(Jalisco), 나아리트(Nayarit) 지방에 산다. 인디언남성은 무명천으로 어깨이음선이 없이 직선마름질이 된 카미사(camisa)셔츠를 착용한다. 셔츠의 가슴, 등, 어깨, 단과 소매의 커프스에는 동물무늬의 자수가 놓인다. 카르손(calzon)바지는 바지통이 매우 넓으며 단에는 셔츠처럼 자수가 장식된다. 카미사위에 걸쳐있는 케이프는 다양한 자수가 놓여있고 그 주변에 붉은 모직천이 붙여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띠위에 다시 두 개의 끈을 감는다. 좌우양측에 두 개의 가방을 걸친다. 차양이 넓은 모자의 차양둘레에 술방울을 단 끈이 부착된다. 겨울철에는 모직으로 만든 세라페(serape)라는 어깨걸이를 입는다<sup>6)</sup>. 인디언여성들은 케스케미틀(quechuemittl)을 중심으로 한 가장 전형적인 멕시코 복식을 착용한다. 이것은 카미사보다 조금 두터운 목면으로 만들어 자수가 놓인 정방형의 상의이다. 사각형의 각진 부분이 정면중앙으로 놓이도록 착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스케미틀안의 카미사에는 어깨, 가슴, 단, 커프스 등 기하학무늬의 자수가 놓인다. 목면으로 만든 팔다(falda)스커트는 허리에 잔잔한 주름이 있고 끝단에 카미사처럼 무늬가 장식된다. 허리에 띠를 두른다.

#### 3) 자보텍(Zapotec)인디언

자보텍인디언은 멕시코의 옥사카(Oaxaca)일대에 거주한다. 인디언여성의 복식은 멕시코에서 걸작으로 꼽히는 복식중의 하나이다. 흰색목면의 두 장을 한 장은 오른쪽, 다른 한 장은

<표 1> 중남아메리카의 인디언복식

중남아메리카인디언복식

메스아메리카문화권



위출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62, 63)



자보텍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63)



오토미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62)



스닐지방키체인디언  
(クアテマラ・マヤ民俗衣裳展 p.69)



나와라지방 키체인디언  
(クアテマラ・マヤ民俗衣裳展 p.61)



산판아티탄지방 맘인디언  
(クアテマラ・マヤ民俗衣裳展 p.77)

안데스문화권



퀘차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77, 82)



아라우카니언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82)



아이마라인디언  
(原色世界衣服圖鑑 p.73)

중남아메리카인디언복식

패션과 문화



콜로라도인디언  
(세계Y衣裳, p.105)



싱구인디언  
(World Dress p.40)



카야포인디언  
(World Dress p.41)



카라자인디언  
(World Dress p.41)

왼쪽으로 오게 길이로 이어만든 위필(huipil)을 착용한다. 앞뒤의 중앙과 양옆의 이음선위로는 꽃무늬로 자수한 천을 붙인다. 여러색상의 견사다발을 엮은 다음, 여기에 술을 달아 목선의 중앙에 연결한다. 의례용의 위필에는 특히 많은 문양의 자수가 놓이는데,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형이 앞뒤로 9줄이나 13줄씩 두 부분으로 들어있다. 이 숫자는 마야우루론과 관련되는 것으로 13수준을 지닌 하늘과 9수준을 지닌 지하세계를 암시한다<sup>9)</sup>. 두꺼운 목면으로 만든 엔레도(enredo)스커트는 스페인에 정복되기이전부터 인디언의 스커트로 하반신에 감아 입었다. 무명실로 마름질한 허리띠를 두른다. 레보조(rebozo)라는 술을 어깨에 걸치며, 로데트(rodete)라는 모사다발을 감아 만든 커다란 터번스타일의 머리장식을 한다. 이 로데트는 멕시코에서 가장 개성적 헤드드레스이다<sup>9)</sup>.

4) 오토미(Otomi)인디언

멕시코에 사는 오토미인디언의 여성은 한 장의 흰색면으로 되어 허리선에서 아래배까지와 끝단에 짙은 감청색의 단이 장식된 엔레도스커트를 착용한다. 인도네시아의 사롱처럼 뒤는 몸에 맞게 붙이고 앞은 주름을 잡은 식으로 입는다. 목면으로 된 블라우스는 앞뒤 몸판의 가슴과 등에 섬세한 주름이 있다. 블라우스위에 입는 케스케미틀의 뒷부분에는 흰색바탕에 검정색과 붉은색의 동물과 식물무늬의 자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가로줄무늬가 자수된다. 허리에 두르는 띠의 양쪽끝에 술장식이 있다. 나무로 만든 모자는 대접같은 형태이며 새무늬가 그려있다<sup>9)</sup>.

5) 키체(Kiche)인디언

과테말라의 스닐(Zunil)지방에 거주하는 키체인디언의 남성

은 헐렁한 카미사와 카미사와 동일한 천을 만든 길이가 짧은 바지를 착용한다. 카미사는 옆선을 재봉하지 않고 열린 채로 착용한다. 허리에 화려한 색상으로 직조한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스테(tzute)를 감는다. 여성은 위필과 코르테(corte)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두른다. 2장구성으로 된 위필은 붉은색, 황색, 청색 등의 평직에 두꺼운 세로무늬가 있고 가슴부분에 꽃모양의 자수가 놓인다. 머리에 신타(cinta)를 감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색실로 붉은색, 황색, 청색, 흰색 등의 기하학무늬, 동물이나 사람무늬가 직조된다. 어깨에 독특한 형태의 스테를 걸치는 데, 스페인통치이전의 의상이며 추울 때에는 이것으로 몸을 꼭 감싸 정도로 아주 크다.

과테말라의 나와라(Nahuata)지방에 사는 키체인디언의 남성은 칼라와 소매입구에 봉취직(縫取織)이 있는 카미사와 길이가 짧은 바지를 착용한다. 그 위에 검정색과 흰색의 모직으로 짠 로디레라(rodillera)스커트를 입고 봉취직의 넓은 허리띠를 맨다. 남성이 천연의 양털실을 사용해 짠 가방에는 여러가지 동물무늬가 나타난다. 남성용의 스테는 짙은 감색바탕에 여러가지 전설상의 동물이 사이케데릭한 색조로 짜여 있다. 여성의 위필은 붉은색 문양실이 흰바탕에 번져나온다. 이런 느낌을 좋아해 착용하는 마음은 드물다. 옛날에는 이 번짐이 견직의 색실이 세탁에 의해 흘러나왔지만, 지금은 견직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용한다. 허리띠에는 감색의 명주바탕에 봉취직이 놓인다.

과테말라의 켓짜르테난고(Quetzaltenango)지방에 거주하는 키체인디언의 여성은 의식용으로 3장구성의 길이가 긴 소브레위필을 겹쳐 착용한다. 소브레위필은 얇은 면직물의 한 쪽면에 봉취직으로 사람, 새, 식물 등 무늬가 붉은색, 황색, 자색으로 놓인다. 예전에는 이 자색부분에 구자염(具紫染)의 실

이 사용되었다. 신타는 약 폭이 4cm, 길이가 15~20cm로 아주 길며 붉은색바탕에 동식물무늬가 직조된다. 위필의 의식용은 기술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치밀하고 매우 화려하며 평상복위에 걸쳐 입는 것이 많으므로 크게 만든다<sup>10)</sup>.

#### 6) 맘(Mam)인디언

과테말라의 산 판 아티탄(San Juan Atitan)지방에 사는 맘인디언의 남성은 카미사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허리띠를 두른다. 머리에 스테를 감고 그 위에 리본을 감은 솜브레로 모자를 쓴다. 카미사는 붉은색 천위에 흰색을 넣고, 옷깃과 소매의 일부분에 봉취직이 놓인다. 카미사위에는 카미사이(capixay)라는 모직의 긴 상의를 착용하는 데, 소매는 팔을 통하지 않고 어깨뒤로 늘어뜨린다. 여성은 위필과 코르테를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 머리에 신타를 감는다. 위필은 3장구성으로 길이가 길고 걸어 올린후에 한꺼번에 배듯이 입는다. 붉은색과 흰색의 두꺼운 명주위에 봉취직으로, 붉은색을 주조색으로 하는 기하학무늬가 놓인다<sup>11)</sup>.

## 2. 안데스문화권의 복식

#### 1) 괄비노(Guambino)인디언

괄비노인디언은 콜롬비아고지에서 고립되어 살기때문에 자신의 고유문화를 잘 보존한다. 주로 전통적인 푸른색과 흰색의 복식을 착용한다. 인디언남성은 푸른색 면셔츠와 흰색 모직바지를 입고 그 위에 일종의 판초나 루아나(ruana)라는 케이프를 걸치는 데 색상은 오토밀색에서 검정색까지 다양하며 모의 천연색상이다. 이것은 콜롬버스이전의 복식형태이다. 인디언여성은 짧은 소매의 블라우스와 남성셔츠와 동일한 색상의 푸른색 판초를 착용하고, 검정바탕에 색상있는 줄무늬로 짠 플리츠 랩스커트를 입는다. 여러 줄의 구슬목걸이를 하는 데, 구슬의 수량은 인디언사회의 지위와 부를 가리킨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안데스 전역에서 발견되는 따뜻하고 두꺼운 펠트모자를 쓴다<sup>12)</sup>.

#### 2) 오타발로(Otavalo) 인디언

오타발로인디언은 안데스산맥의 에콰도르에 거주하며, 잉카군대가 모든 에콰도르주민들을 정복하는 데 17년의 세월이 걸린만큼 동화에 강한 저항심을 가진 인디언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흰색과 검정색의 독특한 복식을 착용한다. 판초나 망토와 벨트에서 나타나는 오타발로의 직조는 매우 유명하다. 남녀모두 주형으로 압축하여 매우 뽀뽀하게 고정시킨

펠트로 만든 모자를 쓴다. 모자는 바람으로 보호해 주고, 위로 젖혀진 가장자리는 시장에다 작은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들자신이 수공품의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전세계에 직조한 텍스타일과 다른 수공예품을 판매한다<sup>13)</sup>.

#### 3) 케차(Quechua)인디언

케차인디언은 잉카제국의 페루 쿠스코(Cusco)주변에 산다. 인디언남성은 종아리길이의 긴 검은색바지를 셔츠, 조끼, 또는 코트와 같이 착용한다. 그 위에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판초에는 가장자리를 풀어 프린지이 장식되고 중앙에 이음선이 있다. 또한 세라페를 두르기도 한다. 때로는 벨트를 유색의 새시위에 매기도 한다. 출로(chullo)모자는 긴 것과 짧은 것이 있으며, 끝이 가늘게 되어 사용하면 도중에서 꺾여 구부러진다. 양측에 반원형의 귀마개가 달린다<sup>14)</sup>. 인디언여성은 칼라없이 둥글게 파이고 앞중심선에서 흑으로 잠그고, 목선, 앞중심선, 단, 소매부리 등의 가장자리에는 모두 테가 돌린 상의를 입는다. 모직물로 만든 스커트는 원통으로 허리에다가는 주름을 잡고 단부분에 테이프를 넣어 장식한다. 스커트와 같은 소재인 솔은 가장자리에 테이프장식이 들어있다. 아기를 망또에 싸서 등뒤에 얹혀서 다니는 데, 이 망또는 솔위에 착용하여 앞에서 매듭을 짓는다. 어깨에 걸친 가방은 코카(coca)를 넣어 다니는 데, 실용적인 목적을 겸한 장신구이다<sup>15)</sup>. 잉카시대에 볼수 있는 웅크라는 상의에는 소매가 없고 재단방법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자주 판초와 혼동하기도 한다. 짙고 엷은 갈색에 윗부분만 밝은 붉은색을 나타내며 기하학무늬가 놓인다. 잉카문명의 영향을 받은 망토는 어둡고 붉은 목면의 천에 여러가지 색의 모사로 인물을 자수하여 장식한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뒤를 젖히고, 한쪽 손은 허공을 향해 내뻗고 있는 데 짙은 갈색의 가장자리부분에 더욱 큰 실루엣이 놓인다<sup>16)</sup>.

#### 4) 치바이(Chivay)인디언

치바이인디언은 페루남쪽의 아레키퍼(Arequipa)에 거주하는데, 인디언여성은 가장자리의 자수와 밝은 색상의 산뜻한 혼합을 지닌 긴 스커트를 착용한다. 조끼의 양식화된 꽃가장자리에는 새, 꽃, 물고기를 묘사한 체인스티치가 놓인다. 스커트는 앞면에 작은 주머니와 뒤면에 장식적인 버슬이 들어있다. 자켓의 커프스와 가장자리에 자수가 놓인다. 이 지역의 인디언남성은 발틀재봉틀을 사용하여 자수와 레이스아플리케를 작업한다<sup>17)</sup>.

### 5) 아이마라(Aymara)인디언

볼리비아에 사는 아이마라인디언의 남성은 모직물로 만든 헐렁하고 짧은 바지와 셔츠를 착용한 후, 자수가 놓인 허리 띠를 두른다. 세라페나 판초를 어깨에 두른다. 이 지역은 극도로 추운 곳이기때문에 긴 귀덮개가 달린 홀로모자를 쓰고 필요에 따라 펠트모자를 이 모자위에 착용하기도 한다. 맨발이거나 손으로 만든 샌들을 신는다. 인디언여성은 천연색의 마로 수직한 블라우스를 착용한다. 블라우스의 허리선에서 단까지 주름이 들어가고, 가슴, 커푸스, 단 등에는 검정색의 가는 끈이 장식된다. 두꺼운 면으로 만든 흰색속웃은 라운드 네크라인에 개더를 잡아 테이프를 만들어 싸준다. 가는 주름이 잡힌 플리스스커트에는 붉은색바탕에 흰색, 푸른색, 녹색 등의 가로줄무늬가 들어있고 아랫단은 검정색이다. 어깨에 두른 솔이나 판초는 스커트와 유사한 색상의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다. 머리수건은 다양한 색상의 가로줄무늬를 짜넣은 모직물로 만든다. 스폰모양의 금악세사리는 한 쪽을 뾰족한 핀으로 만들어 솔에 꽂아 장식하거나 또한 식사에 사용하는 실용성을 겸한 장신구이다. 큰 것(29cm), 중간 것(25cm), 작은 것(12cm)의 세 종류가 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뿔아 뒤로 늘어뜨린다. 허리에 묶은 띠의 왼쪽에는 코카를 넣은 작은 주머니가 있다<sup>18)</sup>.

### 6) 아라우카니언(Araucanian)인디언

칠레의 남부지방에 사는 아라우카니언인디언의 남성은 수직에 의한 모직물로 만든 판초와 통이 좁은 바지를 입는다. 앞트기가 있는 판초에는 옷단에 면사를 풀어 만든 프린지이 달려있고 길이가 짧다. 검정색에 가까운 진한 감색바탕에 흰색으로 대담하게 짠 기하학무늬가 들어있다. 판초의 검정색은 추장이 사용하는 색상으로 존경을 의미하는 색이다<sup>19)</sup>. 인디언여성은 긴 소매재킷과 블라우스를 풍성한 스커트위에 착용한다. 솔이나 모포를 어깨에 둘러싸서 앞에서 묶는다. 은체인목걸이는 형태와 디자인을 잉카인이 착용한 것에 기초를 둔다. 펠트나 밀짚모자를 착용한다. 아라우카니언인디언의 복식중에 가나다란 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양 끝에 술장식이 달려있다. 여기에는 사람 혹은 안데스에 많은 코도르(condor)와 소 등을 모티브로 한 장식도안이 들어있다<sup>20)</sup>.

### 7) 마푸처(Mapuche)인디언

아르헨티나에는 토착민 마푸처인디언이 거주하는 데, 이들의 복식은 안데스의 다른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형태가 여기에서도 발견된다. 그들은 판초와 망또, 테가 좁은

펠트형태의 뜨개질한 모자를 착용한다<sup>21)</sup>.

## 3. 열대우림문화권의 복식

### 1) 야구아(Yagua)인디언

콜롬비아에 사는 소부족으로 야구아인디언은 콜롬비아강 상류의 아마존강유역에 산다. 이들 복식은 콜롬버시 이전의 스타일이다. 인디언남성은 브리치클로스(breechcloth)나 나무 껍질로 만든 남성용경벨트와 씨앗으로 만든 목걸이와 부적을 착용한다. 곤충한테 물리기를 피하기위하여 피부에다 기름과 풀로 만든 방충제를 바른다. 씨앗과 원숭이이빨을 술로 장식하여 단다<sup>22)</sup>. 인디언여성은 면섬유나 야자섬유로부터 직물을 직조하여 스커트를 만들거나 몸을 감싸는 형태를 만든다.

### 2) 콜로라도(Colorado)인디언

에과도로의 저지대삼림에 사는 콜로라도인디언은 붉은색 색소를 몸에 채색하고 있기때문에 콜로라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디언남성은 면으로 만든 흰색과 푸른색 줄무늬를 허리에 두르는 전통적인 요의를 착용하고 인디언여성은 녹색과 주황색, 붉은색의 줄무늬로 된 긴 스커트를 입고 남녀 모두 상반신을 벗은 채로 생활한다<sup>23)</sup>.

### 3) 자바로(Jivaro)인디언

에과도로의 남동쪽에는 열대성지역에 거주하는 자바로인디언이 있는 데,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는 복식을 착용한다. 그들은 램스커트를 착용하고 귀에다 구슬과 대나무를 관통하는 귀걸이를 한다. 깃털장식을 머리에 하고 몸에 채색을 한다. 이것은 콜로라도인디언과 같은 방식으로 장식한다. 몸에 채색하는 것은 보호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미학적인 의미로도 이용된다.

### 4) 파나루(Panaru)인디언

베네수엘라의 파나루인디언은 모든 아메리카의 정글인디언처럼 착용하는 복식은 가장 최소의 부피이다. 허리에 전통적인 기하학무늬가 그려진 요의를 두르고 팔과 목에는 염주로 장식하고 굴부리새가죽, 원숭이의 송곳니로 만든 목걸이를 한다. 그들자신과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줄을 다리에 묶어 장식한다<sup>24)</sup>.

### 5) 싱구(Xingu) 인디언

아마존인디언은 싱구지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산다. 싱구

인디언은 착용하는 복식이 거의 없으나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동기를 가지는 정교한 형태의 바디페인팅을 행한다.

#### 6) 카야포(kayapo) 인디언

카야포인디언은 많은 부족들처럼 모자와 다른 악세서리를 위한 정교한 깃털장식을 포함한 의식용 댄스복식을 착용한다.

#### 7) 카라자(Karaja)인디언

브라질에서 가장 화려한 부족중의 하나가 카라자인디언인데, 그들은 고이아스(Goias)와 마토 그로스(Mato Grosso)주의 바나날(Bananal)섬에 거주한다. 인디언남성은 개인치장과 의식활동을 위해 가면과 깃털의 머리장식을 만든다. 깃털을 장식하는 데 세가지 스타일이 있다. 나팔꽃모양으로 위로 벌린 형태로 단순한 스타일과 마코앵무새, 해오라기와 오리과 같은 이색적인 깃털을 사용하여 특별한 행사에 젊은이에게 착용하는 거대한 님버스(nimbus) 머리장식이 있다. 세번째는 원형에다 솟아오른 수직깃털을 단 왕관형태이다. 카라자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장식물은 펜던트형으로 종려잎섬유로 만든 깃털벨트이며, 무릎과 팔에는 술이 달린 깃털이 묶인다. 남성은 상의를 거의 입지않고 보통 구슬줄이 달린 브리치클로스를 입는다. 특별한 의식을 위하여 카라자인디언은 긴 스커트와 가슴, 등을 덮은 깃과 한쌍의 꼬리깃털을 꼭대기에 단 원추형의 머리덮개를 한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고 미신적인 창조물이다<sup>26)</sup>.

### IV. 중남아메리카 인디언복식의 비교

#### 1. 남성복식

메소아메리카문화권의 인디언남성은 헐렁한 셔츠와 바지를 착용하며 바지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다. 무릎이 헐렁하고 바지부분이 넓은 형태도 있으며 길이가 짧고 드른워크로 자수가 놓인 형태도 있다. 그 위에 앞이 트인 케이프를 걸치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 겨울철에는 앞이 트인 세라페나 스텔을 두르기도 한다. 세라페는 원래 장식을 목적으로 어깨에 걸치던 것이 방한용 모포, 침구, 천막, 태양이나 비를 막는데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sup>26)</sup>. 남성에 의해 짜여지며 강렬한 정도의 화려한 배색인 특징이다. 과테말라에서는 셔츠위에 긴 상의를 착용하거나 바지위에 로디레라라는 스커트를 착용한다. 어깨에 가방을 매고 머리수건이나 펠트모자로 장식한다. 멕시코에는 다양한 자수가 놓이는데, 특히

크로스스티치(cross stich)는 인디언복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에서 서로, 혹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자수하는 것은 크로스가 수직방향으로 생기는 5개의 점을 가진 세계의 중요한 4점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주의 사각형으로 알려진 중요한 생명의 상징이라 한다<sup>27)</sup>.

안데스문화권에서 인디언남성은 몸에 붙은 셔츠나 조끼, 코트와 폭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그 위에 손으로 짠 판초나 세라페를 걸친다. 판초는 옛날 고대로마인이 착용한 관두의를 연상시키는 소매없는 달마티카의 일종이다. 판초의 어원은 현재 칠레남부에 사는 아라우카니언인디언이 착용했던 라마, 알파카, 바큐나 등의 짐승털을 혼합하여 수직으로 만든 소박한 직물이다<sup>28)</sup>. 안데스문화권의 나라들은 하루의 기온차이가 격심해서 해가지면 급격히 추워지는 독특한 기후 특징을 가진다. 이런 지방에서는 간단히 입고 벗을 수 있는 판초가 기후변화의 조절에 도움을 준다<sup>29)</sup>. 한 장의 천으로 만든 판초는 중앙에다 열림을 두어 여기에 머리를 통과시키며 목선이 V자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가장자리를 풀어 프린지 장식되고 중앙에 이음선이 들어간 판초도 있다. 세라페는 판초와 유사하지만 앞쪽이 트여있다. 안데스인디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안데스 전 영역에서 발견되는 펠트모자를 쓴다. 이 모자는 검정색이나 갈색의 중절모자와 같은 형태이다. 출로모자는 무지에 기하학무늬를 디자인하거나 라마와 태양을 장식하기도 한다. 맨발이거나 손으로 만든 앞트인 가죽샌들을 신는다.

열대우림문화권에서 인디언은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깃털이나 나뭇잎같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적은 부피의 복식을 착용한다. 남성은 상의를 거의 입지않고 브리치클로스나 남성용경벨트와 싸앗으로 만든 목걸이와 부적을 착용한다. 특별한 의식을 위하여 긴 스커트와 가슴, 등을 덮은 깃과 한쌍의 꼬리깃털을 꼭대기에 단 원추형의 머리덮개를 한다. 이러한 깃털장식은 후광효과를 위해 고안되고 머리부분을 미화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태평양연안의 종족과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sup>30)</sup>. 바디페인팅으로 나체장식을 많이 하는 데, 백토, 적토, 황토, 목이나 식물색소의 액즙을 이용하여 착색한다. 그 문양은 종족의 독특한 디자인, 의식특유의 형식, 관례에 따른 특정한 문양이 있고, 채색하는 부위도 안면이나 흉부, 허리 주변 등이 많다. 이 장식은 제사의식이나 행사의 표식, 신을 향한 기원의 표시, 개인의 보호나 주술 등에서부터 종족의 상징성별의 표식, 성년이나 기혼자의 구별 등 각종의 목적으로 이용된다<sup>31)</sup>.

<표 2> 중남아메리카 인디언복식의 비교

		메소아메리카문화권	안데스문화권	열대우림문화권
인디언 남성	색 상	흰색, 붉은색, 황색, 녹색, 감색 푸른색, 검정색	흰색, 붉은색, 녹색, 황색, 푸른색 검정색	흰색, 붉은색, 녹색, 황색, 푸른색
	문 양	기하학무늬, 천상·기상무늬 신화·전설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사람무늬, 줄무늬	기하학무늬, 천상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사람무늬, 줄무늬	줄무늬
	소 재	면섬유 모섬유 견섬유	면섬유 모섬유	면섬유, 야자섬유, 씨앗, 구슬 깃털, 조가비
	장신구	머리수건, 펠트모자, 가방, 맨발 샌들	펠트모자, 줄로모자, 의식용막대기 샌들	씨앗, 구슬목걸이, 깃털장식, 가면 바디페인팅, 부적, 맨발
	복 식	혈령한 셔츠, 폭이 넓은 바지 케이프, 세라페, 스테, 망또 허리띠, 셔츠위에 긴 상의 바지위에 로디레라스, 커트	몸에 붙은 셔츠, 조끼 코트 폭이 좁은 바지, 프릴달린 판초 세라페, 웅크, 망또, 허리띠	나체, 상의를 입지않음 브리치클로스, 남성용경벨트
인디언 여성	색 상	흰색, 감청색, 붉은색, 황색, 자색 청색, 녹색, 검정색	흰색, 붉은색, 녹색, 황색, 자색 푸른색, 검정색	흰색, 녹색, 주홍색, 붉은색 푸른색
	문 양	천상, 기상무늬, 기하학무늬 신화·전설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사람무늬, 줄무늬	줄무늬, 기하학무늬, 식물무늬 동물무늬, 사람무늬	줄무늬
	소 재	면섬유 모섬유 견섬유	면섬유 모섬유 마섬유	면섬유, 야자섬유 구슬, 깃 털
	장신구	머리띠, 머리수건, 터번스타일 펠트모자, 맨발, 샌들	머리수건, 펠트모자, 밀짚모자 은체인목걸이, 스펀모양 악세사리 코카주머니, 샌들	구슬목걸이, 코걸이, 바디페인팅 맨발
	복 식	블라우스, 폭이 넓은 스커트 풍성한 케스케미틀, 위필, 소브레위필, 스테, 레보조, 허리띠	몸에 붙은 블라우스 풍성한 플리츠스커트 나 개더스커트, 조끼, 자켓, 숄 모포, 판초, 망또	나체, 상의 걸치지 않음 스커트

## 2. 여성복식

메소아메리카문화권의 인디언여성은 블라우스와 폭이 넓은 스커트를 착용하는 데, 스커트는 뒤편에서는 몸에 맞게 붙이고 앞은 주름을 잡은 식으로 입는다. 그 위에 판초의 일종인 혈령한 케스케미틀이나 위필을 착용한다. 또한 블라우스를 입지않고 바로 위필만 착용하는 인디언도 있다. 케스케미틀은 겨드랑이밑을 꿰매지 않고 몸의 윗부분을 덮는 삼각형태의 판초로 가장 토착적인 복식이다<sup>32)</sup>. 이것은 주로 멕시코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에서 주로 착용하고, 착용하는 기원에 따라 앞, 뒤 또는 옆에 포인트를 두어 착용한다. 위필은 폭이 넓은 형질을 돌로 접어 관두부와 소맷부리를 남기고 겨드랑이밑을 꿰맨 것으로 과거 아즈텍시대의 「huipilli」에서 유래하고<sup>33)</sup> 주로 멕시코의 남부지방과 과테말라에서 착용한다. 크기는 길거나 짧고 좁거나 혈령하다. 머리에 감기도 하고 폭을 넓게 하여 허리에 감기도 한다. 위필은 고도의 높은 문화를 지니면서 스페인의 영향을 받지않는 아즈텍문명과

마야문명의 산물이다<sup>34)</sup>. 과테말라의 위필에서는 마야문명을 추측하는 종교, 신화, 전설의 형상, 천체와 기상을 상징화한 문양을 볼 수 있다. 의식용으로 소브레위필을 겹쳐서 착용한다. 머리에 신타라는 띠를 감는 데, 마야시대의 토우나 벽화 등에서 원형으로 생각되는 것이 발견된다. 신타는 각 마을마다 소재, 색상, 문양, 천의 넓이가 다르다. 허리에는 두르는 띠는 멕시코에서는 기능과 장식의 목적이외에도 주술적인 의미로도 착용된다<sup>35)</sup>. 디자인과 색상은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여겨져 신분의 구별이 가능하고 위험과 재앙으로 보호해 준다고 믿고있다. 어깨나 머리에 스테라는 수건을 쓰는 데, 여기에 물건을 싸거나 아이를 등에 업거나 추울 때는 몸에 두르기도 하며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접어서 머리에 얹은 다목적의 장식용이다. 맨발이거나 앞트인 샌들을 주로 신는다.

안데스문화권의 인디언여성은 몸에 붙은 블라우스와 풍성한 플리츠스커트나 개더스커트를 입는다. 블라우스위에 조끼나 자켓을 입기도 한다. 숄이나 모포를 어깨에 둘러싸서 앞에서 묶으며, 스커트와 유사한 색상의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다. 판초는 긴 한 장의 천을 다양한 방법으로 머리둘레, 얼굴, 목과 어깨에 드리워 착용하는 것이다. 원단이 부드러워 여성용은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를 만들며 모의 천연색인 옅은 다갈색이 사용된다<sup>36)</sup>. 또한 가볍고 따뜻하며 여행 중 날씨가 쌀쌀할 때에는 어깨에 걸치기도 하고 무릎을 덮기도 한다. 머리수건이나 펠트모자를 착용한다. 독특한 스펀모양의 악세사리는 장식용이나 식사에 사용하는 실용성을 겸한 장신구이다. 허리에 묶은 띠에는 코카를 넣은 작은 주머니가 붙어있다.

열대우림문화권의 인디언여성은 상의를 걸치지 않고 면섬유나 아자섬유로부터 직물을 직조하여 스커트를 만들거나 몸을 감싸는 형태를 만든다. 남성처럼 바디페인팅으로 몸을 장식한다. 구슬목걸이나 코걸이로 장식하기도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중남아메리카의 문화권에서 발생한 인디언복식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여러 문화권에 따른 인디언문화와 복식의 관련성과 상징성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남아메리카의 인디언남성은 문화권에 따라 복식 형태가 다를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문화권에서는 혈령한 셔츠와 폭이 넓은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두른다. 그 위에 케이프나 세라페를 착용한다. 안데스문화권에서는 몸에 붙은 셔츠나 조끼, 코트와 폭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허리띠를 두른다. 그 위에 웅크, 망토, 판초나 세라페를 입는다. 열대우림문화권에서는 나체 또는 상의를 걸치지 않고 하의에다 천연재료로 만든 브리치클로스를 착용하며 깃털, 구슬이나 바디페인팅으로 장식한다.

둘째, 중남아메리카의 인디언여성은 문화권에 따라 복식 형태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메소아메리카문화권에서는 인디언여성은 블라우스와 폭이 넓은 스커트를 입고 허리띠를 두른다. 그 위에 혈령한 케스케미틀이나 위필을 착용한다. 안데스문화권의 인디언여성은 블라우스와 풍성한 플리츠나 개더스커트를 착용하고 그위에 솔이나 모포, 망토, 판초를 어깨에 두른다. 열대우림문화권의 인디언여성은 남성처럼 나체 또는 상의를 거의 입지 않고 아자섬유나 식물껍질로 만든 스커트를 착용하며 바디페인팅이나 구슬로 주로 장식한다.

셋째, 메소아메리카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인디언복식과 장신구의 색상과 문양은 아즈텍문명과 마야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야문명의 세계관에 기초한 다섯색상은 붉은색, 흰색, 검정색, 황색, 녹색이며, 대지의 네 곳에는 신이 있고 각각 색이 정해져있다. 동쪽은 붉은색, 북쪽은 흰색, 서쪽은 검정색, 남쪽은 황색 그리고 세계의 중심색은 녹색이다. 복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상짜임은 상의에는 붉은색이나 흰색, 하의에는 검정색이나 짙은 감색 또는 황색배색이다. 인간을 상하로 분류하여 상부에는 천상계와 관련되는 붉은색, 흰색을 배치하고 하부에는 지하세계와 관계있는 검정색이나 황색을 사용한다. 이것은 고대마야의 색상에 대한 전통이 전승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양은 아즈텍과 마야문명의 믿음을 강하게 나타내는 기하학무늬, 사람무늬, 동물이나 식물무늬, 천상이나 기상무늬, 신화나 전설무늬 등을 볼 수 있으며 주로 자수와 직조를 통해 표현한다.

넷째, 안데스문화권에서는 나타난 인디언복식과 장신구의 색상과 문양은 잉카문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복잡한 상징성은 피하고 붉은색과 녹색, 황색과 푸른색, 자색과 오렌지색 등 색채의 대조를 선호한다. 또한 문양에서는 자수, 직조, 염색을 이용하여 복식에 표현하고있다. 파선, 번개 등의 기하학무늬와 꽃, 새나 물고기의 식물이나 동물무늬, 사람무늬, 천상무늬 등을 도안한 것을 사용한다. 잉카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무늬를 균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으며 이것은 잉카인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메소아메리카문화권과 안데스문화권에서는 독특한 기후특징때문에 판초형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높은 문화를 지닌 아즈텍문명과 마야문명의 산물이며 가장 토착적인 복식인 위필과 케스케미틀을 착용하며, 안데스문화권에서 잉카문명의 영향을 받은 웅크와 판초를 입는다. 또한 메소아메리카문화권에서의 망토와 세라페는 안데스문화권의 인디언복식에서도 나타난다.

여섯째, 열대우림문화권은 기후적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메소아메리카문화권이나 안데스문화권과는 다른 아주 단순한 복식형태를 보여주고있다. 깃털과 나뭇잎같은 천연재료 사용하여 매우 적게 착용하며 또한 색상감각이 아주 뛰어난다. 또한 몸에 복잡한 무늬와 디자인으로 채색하기도 한다.

아메리칸인디언의 여러 문화권들은 고도의 문화의 꽃을 피운 마야문명과 아즈텍문명, 잉카문명 등의 영향을 받아 다른 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지닌 복식을 탄생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메리칸인디언의 감성적이고 시각적인 감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21세기의 패션디자인연구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1. Jules B. Billard, The World of the American India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93, p.375.
2. 이숙희, 아메리칸인디언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 1994, pp.368-386.
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주)학원출판공사, 1994, p.374.
4. 학원세계대백과사전, op cit, pp.375-376.
5. Beazley, M., World Dress, Reed Consumer Books Ltd, 1994, p.29.
6. Harrold, R., 유태순역, 세계민속의상, 홍익출판사, 1997, p.144.
7. 황춘섭,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1997, p.239.
8. 田中薫・田中千代, 原色世界衣服圖鑑, 保育社, 1961, pp.62-68.
9. Sayer,C., Mexican Costume,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85, p.125.
10. 東京家政大學博物館, 五色の燦きクアテマラ・マヤ 民俗衣裳展, 東京家政大學出版部, 1998 p.61.
11. 東京家政大學博物館, op cit, p.77.
12. Beazley, M., op cit, p.35.
13. Beazley, M., op cit, p.36.
14. Harrold, R., op cit, p.153.
15. 田中薫・田中千代, op cit, p.77.
16. 飯塚信雄, 世界の服飾, 日本ウォーク社, 1977, pp.37-38.
17. Beazley, M., op cit, p.36.
18. 田中薫・田中千代, op cit, pp.73-76.
19. 田中千代, 世界の民俗衣裳, 株式會社平凡社, 1986, p.68.
20. 의상디자인연구회편, 세계민속의상과 패션, 학문사, 1995, p.91.
21. Beazley, M., op cit, p.39.
22. Beazley, M., op cit, pp.34-35.
23. 韓日新聞社編, 世界の衣裳, 韓日新聞社, 1986, pp.104-105.
24. Ebin, V., 임숙자역, 신체장식, 경춘사, pp.40-41.
25. Beazley, M., op cit, pp.40-42.
26. 박미선, 스페인과 멕시코지역의 민속복식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55.
27. 박미선, op cit, p.82.
28. 韓日新聞社編, op cit, p.96.
29. 착장형태에 따른 세계여러나라의 민속의상, 라미라, 1992, p.59.
30. Harrold, R., op cit, p.12.
31. 의상디자인연구회편, op cit, p.11.
32. 韓日新聞社編, op cit, p.109.
33. 田中千代, op cit, p.66.
34. 飯塚信雄, op cit, p.41.
35. 이정화, 멕시코인디언직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p.34.
36. 田中千代, op cit, p.69.